



지리산 국립공원 천년송 전통혼례 개최 예정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이재원 이하 공단)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와운마을에서 천년송 전통혼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년송 전통혼례식은 공단이 지역주민 및 조선시대 중등 교육기관인 남원향교 등과 협업체 지원,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행사로, 2017년 시작되어 올해 5회째 개최된 행사로 밤사골 단풍시기에 맞춰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혼례장소, 예복, 상차림 등 전통혼례 진행 물품 및 전문 인력과 함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무료로 제공되며, 하객 중식비도 일부 지원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라북도 거주민 본인 및 자녀이며 실제로 결혼은 하였으나 경제적 형편 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부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우선 선발대상으로, 접수기간은 9월 14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9월 16일에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반딧불축제 대비 합동 안전점검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대비하여 축제행사장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하고 당신을 달려줄 무주에서의 휴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8월 27일 토요일부터 9월 4일 일요일까지 9일간 열린다.

반딧불축제 무사고를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 경찰서, 소방서, 안전관리 지문단이 모여 8월 28일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임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조명·무대시설 등 부속시설 안전여부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시설 전기부문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이었다.

소재실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 2021년에 개최를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무주반딧불축제를 사고 없이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 앞두고 용담호 하천정화활동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 장마로 인한 부유쓰레기 집중수거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는 28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용담호 유입하천인 진안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번 하천 정화활동에는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임원 및 회원 90여 명이 참여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급격히 증가한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8개 유입하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진안천을 지나는 진안천은 용담호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천으로 매년 이맘때면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하천 부유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여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수질개선 주민협의회는 정화활동을 통해 부유쓰레기 1.5톤 가량을 수거했다.

김정길 회장은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은 평소 용담호가 살아야 진안군이 산다는 소명의식으로 꾸준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여행전문기자 초청 팸투어 진행

남원시는 비리보는 가을여행지 남원을 테마로 가을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난 25일과 28일(1박2일) 중앙일간지 여행전문기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워드코로나시대 녹색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연계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알리는 장을 마련하였다.

남원시는 그동안 기후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관광정책으로 생태녹색관광 코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왔으며, 백두대간 생태정거장(Eco Station)인 운봉 서어나무 숲이 안심·힐링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숲을 찾는 관광객들 뿐 아니라 대대로 마을 숲을 지켜온 지역주민에게 보람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 무주군지부, 본격 사과 수확 철 맞아 범농협 일손돕기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8일 본격적 사과(홍로) 수확 철을 맞아 안성면 공정리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찾아 범농협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협 임직원 10여명은 사과 수확 작업을 하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함께 맛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농가에서는 "라바지 사과(홍로) 수확에 일손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어떠한 걱정이 많았는데, 적기에 사과수확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농협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농협 차원의 다양한 영농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축협, 조합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조합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문자로 자금을 편취하고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한 신종 피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시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남원축협 강병무 조합장은 "고령인 조합원들이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 '좋은 이웃들', 무주택임차자금 지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좋은이웃들'은 지난 28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2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임차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월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전달되며,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2년간 관리하고 2년이 지난 후엔 지원대상자의 소유가 된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11가정에 총 5,900만원을 지원했다.

김진 회장은 "단순 저소득층 지원을 넘어 주거안정 지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이웃들의 사례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에게 좋은이웃들과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읍, 농촌 일손 돕기 적극 나서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상화),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촌활력과 직원 등 30여 명은 28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읍 연장리 고추재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배우자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3,300여㎡의 고추밭에서 고추 수확을 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고추재배농가 주민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전전긍긍했는데 제 때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